

# Kum Hwa Cable

## “품질향상으로 고객 대만족을 실현하는”

- (주)금화전선 -



박병욱 대표이사

(주)금화전선은 1990년 2월 15일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전 사원이 내 일을 한다는 각오아래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한 생산혁신을 통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보다 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을 통한 나동선, 비닐절연전선, 기기용 전선, 전력 Cable류 등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보다 더 고객의 욕구에 만족을 가하고자 전 사원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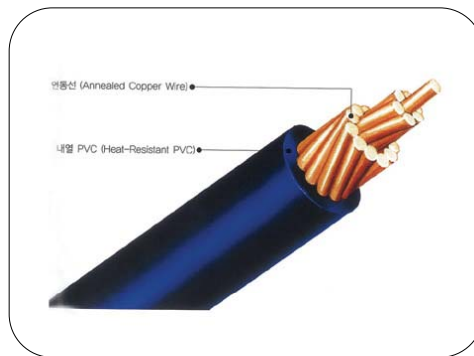
현재,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3대 주력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이다. 모든 산업에서 그러하듯, 생산의 기저를 지탱하는 요소로 전력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의 근대기를 토대로 하든, 중흥기를 맞았다는 현재를 거점으로 하든 전력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배분은, 산업에서 뿐 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막중한 과제일 것이다.

60,70년대 전력 수급의 난제로 인해 겪은 일상의 불편에서부터, 무제한 송전의 한편에서도 전력량의 부족을 실감하게 된 현재에까지, 한 발 더 나아가 전력의 무선 공급까지도 현실로 다가선 상황이지만, 전선이 가진 투영 가치는 그들에 가려졌음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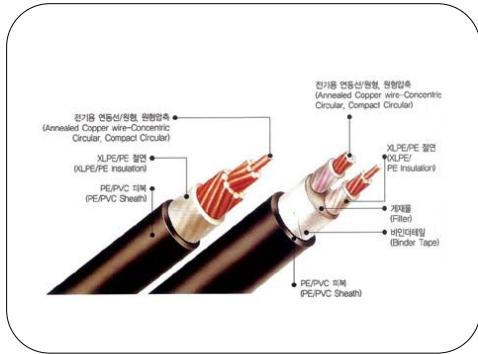
근대 성장을 일구기까지 많은 것들이 부족 했었지만,

유독 필요했던 품목 중의 하나가 전선이 아니었을까 싶다



▲ HIV

(주)금화전선



▲CV(600V) / TFR-CV

대기업이 지닌 전력선 공급의 확실성과 많은 중소기업의 품목 단일성에서 벗어나, 양면의 강점을 합리적으로 수용, 틈새 시장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한 발 앞서고자 하는 기업이 (주)금화 전선이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품질 방침으로, 1990년 금화 전기 설립과 1999년 금화 전선으로 법인 전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박 병욱 대표의 현장 경험에서 체득한 철저한 장인 정신과 협력 업체와의 신뢰, 공정예의 과감한 투자 등은 금화 전선의 보이지 않는 동력으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아울러, 품질 향상이라는 영속적 운영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 철저한 제품 검증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소비자의 기호에 충실하게 접근하고자 노력하기에 품목의 종별이 다양 하지만, 주력 품목을 꼽자면, CV, HIV, VCTF 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설비의 자동화를 꾸준히 도모하고 있고, 공정의 합리적 배분과 운용으로, 효율을 최대한 집약했고, 각 공정의 숙련된 전문인력의 장기 배치로,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 작지만, 신속하고 다양한 체제 가동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의 친숙한 이미지 한 편으로, OEM 체제 가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의 자동화, 수급 인력의 철저한 재교육, 제품 검증의 객관성 확보 등의 노력은 이를 대변한다 할 수 있겠다.

인종과 업종을 가리지 않는 무한 경쟁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전선 또한, 한국을 범주로 경쟁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로 열릴 경쟁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에 봉착했다.



▲ VCTF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주) 금화 전선의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은, 미래를 인식하는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동 상태가 활발하진 않지만, 원자재 수급 및 동향을 위한 거점을 확보한 셈이고 보면, 금화 전선의 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